

치유농업 전문가 의견 폭넓게 수렴, 산업화 실행 전략 보완

- 농촌진흥청, 9월 18일 ‘치유농업 산업화 방안 마련 공청회’ 개최
-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경험하는 치유농업 만들어 갈 것”

※ 일시 : 2026.9.18.(금) 14:00 / 장소 : 건국대학교 생명과학관(서울 광진구)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9월 18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생명과학관에서 ‘치유농업 산업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학계, 연구 기관, 치유농업 현장 및 산업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제2차 치유농업 종합계획 수립 현황’과 ‘치유농업 산업화 방안(안)’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정책 완성도를 높이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산업화 방안의 타당성을 진단하고 현장 적용성, 정책과 제의 실효성 및 보완 사항 등을 분석하고, 발전적 대안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농촌진흥청은 그간 법령 제정과 제도 마련 등 치유농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공고히 다져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치유농업을 일상에 뿌리내리고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참여 주체와 서비스 영역을 확장, 국민 누구나 치유농업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단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특히 보건·의료, 복지, 관광, 교육, 기업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해 새로운 서비스와 시장을 창출하고, 농업인과 관련 전문 인력, 산업계 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노형일 국장은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농촌에는 새로운 활력소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이제는 제도적 기반을 넘어 치유농업이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현장 실무적 차원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정책 집행 단계에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붙임. ‘치유농업 산업화 방안 마련 공청회’ 개최 계획

담당 부서	농촌지원국	책임자	과 장	박수선 (063-238-1010)
	농촌자원과	담당자	지도사	김정현 (063-238-1017)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 목적

- 치유농업 산업화 방안(안)을 공유하고, 학계·현장·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산업화의 기본 방향과 핵심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자 함

□ 개요

- 일시/장소: '26. 9. 18.(금) 14:00~16:30 / 건국대학교 생명과학관
- 참석대상: 치유농업 관련 협회·학계·연구기관, 치유농장 및 치유농업사, 산업계·유관기관, 지방농촌진흥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
- 주요내용
 - 제2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수립 현황 공유
 - 치유농업 산업화의 기본방향 및 핵심 정책과제(안) 설명
 - 산업화 방안의 타당성·현장 적용성 및 보완 사항에 대한 자유토론

□ 세부일정

시 간	분	주 요 내 용	비 고
13:40 ~ 14:00	20'	• 등록	
14:00 ~ 14:10	10'	• 개회 및 인사 말씀	농촌지원국장 건국대 부총장
14:10 ~ 14:30	20'	• 제2차 치유농업 종합계획 수립 현황	건국대 산학협력단
14:30 ~ 15:00	30'	• 치유농업 산업화 방안(안)	농촌자원과
15:00 ~ 16:30	90'	• 쟁점별 자유토론 - 서면, 온라인 의견 수렴	